

대구 · 경북지역 근대건축문화재 교육시설 현황

Educational Facilities As Modern Cultural Assets of Daegu · Gyeongbuk Province



이 도 영 / 안동대 건축공학과 교수(공공디자인센터장)
 Lee, Do-Young / Professor, Andong National University
 dolee@andong.ac.kr

1. 서론

대구를 포함한 경상북도에 근대문화유산이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아마도 1876년 강화도조약에 따른 부산 개항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개항을 계기로 일본인과 구미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상주하게 되면서부터 관공서, 상업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주거시설 등 다양한 근대건축물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원고는 우선 대구경북의 근대교육과 교육시설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아직까지 현존하는 근대 교육시설들을 중심으로 근대건축문화재 지정 상황을 점검해보며, 근대건축문화재로서 이들 교육시설의 건축적 가치 혹은 의미를 종합적으로 재해석해보고자 한다.

2. 대구경북의 근대교육과 교육시설

2004년 9월 경상북도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한 『경상북도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상북도 근대교육은 크게 개화기의 교육, 일제강점기의 교육, 해방이후의 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2.1 개화기의 교육

개화기 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신지식과 신문화 수용을 위한 지역의 자생적 교육기관인 교남교육회 등은 친 보수 반 개방의 색채가 강한 지역의 정서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출범하였다. 둘째, 지역 최초의 신교육 학교는 일본인이 아닌 미국과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었다. 셋째, 교회나 성당을 중

심으로 한 신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특수 목적의 사립학교(양장학교 등)가 그 뒤를 이었다.(표 1 참조)

표 1. 시기별 대구·경북지역 근대교육 현황

시기	주요현황																	
개화기의 교육	▷ 지역 기반 교남교육회 활동 ▷ 도내 최초의 신교육 학교: (1)남성로교회 대문채 활용 대남남자소학교(선교사 아담스 부부, 1897), (2)신명 동산 내 신명여자소학교(선교사 마르다 브루엔) ▷ 1910년 기준 도내 총 150개 학교 활동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개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공립학교</td> <td>실업학교</td> <td>1</td> </tr> <tr> <td>보통학교</td> <td>4</td> </tr> <tr> <td>준 공립보통학교</td> <td>4</td> </tr> <tr> <td rowspan="3">사립학교</td> <td>보통학교</td> <td>4</td> </tr> <tr> <td>종교학교</td> <td>72</td> </tr> <tr> <td>기타</td> <td>65</td> </tr> </tbody> </table>	유형	개수	공립학교	실업학교	1	보통학교	4	준 공립보통학교	4	사립학교	보통학교	4	종교학교	72	기타	65
	유형	개수																
	공립학교	실업학교	1															
		보통학교	4															
		준 공립보통학교	4															
사립학교	보통학교	4																
	종교학교	72																
	기타	65																
▷ 학교유형의 다변화																		
일제강점기의 교육	일제초기	-대구공립보통학교(1906.9)를 비롯한 72개 공립보통학교 운영 -회도사립보통학교(1908.4) 등 2개 사립보통학교 -동촌공립병설소학교를 비롯한 51개의 일본인을 위한 학교 운영																
	일제중기	-1924년 교남학교와 1933년 사립 계성학교 등을 비롯한 중등교육 학교 활성화																
	일제말기	-포항고등여학교(1939.3)를 비롯한 다수의 고등교육 학교 설치 운영 -대구여자사립학교 등의 실업학교와 대구농업전문학교 등의 전문학교 신설 운영																
해방이후의 교육	▷ 도내 총 14개의 중등학교 운영 ▷ 안동사범학교(1947.7), 대구사범학교(1950.9),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 등 전문대학 설치 운영																	

* 출처: 경상북도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2004)

2.2 일제강점기의 교육

일제강점기 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보편적인 공공교육을 지향하는 일제의 교육정책에 힘입어 사립학교 수가 크게 줄고 공립보통학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학교유형의 다변화가 시도되어 보통학교 중심 교육에서 중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셋째,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산되어 고등학교, 실업학교, 농업 중심의 전문학교 등이 설립 운영되었다.(표 1 참조)

2.3 해방이후의 교육

해방이후 나타난 괄목할만한 교육시설의 특징은 첫째, 체계적인 교육자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사범학교가 안동과 대구에 건립된 사실이다. 둘째, 일반적인 고등교육의 범주가 사범, 의학, 농학 등 전문가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 체제로 확대 개편되기 시작하였다.(표 1 참조)

대구·경북지역 내 소재하는 현존하는 교육시설들 중에서 2004년 9월 발간된 『경상북도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 및 『대구광역시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 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지역(경상북도, 대구광역시)별 근대건축문화재 분포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3.1 경상북도 근대건축문화재 교육시설

경상북도 근대건축문화재 교육시설 분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3개 시군에 걸쳐 다수의 근대건축문화재 교육시설들이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제한적인 수(8개)의 근대교육시설들이 비지정문화재로 선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상대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조성된 근대문화유산 교육시설에 대한 지역민들의 부정적 정서를 읽을 수 있다. 둘째, 일제 강점기에 설립된 근대건축문화재 교육시설은 천주교 화산공소, 김천고등학교, 순심중학교 기숙사 등 3곳뿐으로 일제강점기 동안 건립된 근대교육시설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가 여전히 평가

3. 근대건축문화재 교육시설 분포현황

표 2. 경북지역 근대건축문화재 교육시설 현황 요약표

구분 (분류)	시설명 (소재/연도/지정년도)	시설현황			
		규모 (연면적㎡)	구조	설계자	특징
비지정 문화재	1 천주교 화산공소[화산초등학교] (영천/1929/2003)	- 1층	콘크리트조, 판조, 굽 슬레이트 맞배지붕	미상	- 외관은 비늘판벽으로 마감 - 목재창틀에 미서기 유리창 - 내부바닥은 목재 장마루판
	2 김천고등학교[김천고등보통학교] (김천/1931/2003)	- 본관 2층 - 창고 1층	(본관)붉은벽돌조, 2층 평지붕 (창고)목조트러스조, 단층 목조합석 우진각집	미상	- 영남의 대표적인 명문사학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 - 벽돌은 평양산 사용, 기초는 황등석 사용
	3 순심중·고등학교 기숙사 [왜관성당 수녀원] (철곡/1933/2004)	- 2층 - 연면적 : 235㎡ - 건축면적 : 147.4㎡	2층 붉은벽돌조, 굴합석 우진각지붕	여 벽돌 신부	- 콘크리트 줄기초 위 붉은 벽돌 영식 쌓기 - 창대 물흘림 경사 - 사용된 붉은 벽돌을 기술자 고용 수 도원 동편 언덕 가마 설치 제작 활용
	4 대왕사[감산보통학교] (경주/1946/2003)	- 1층 - 134.24㎡	목조 누름대비늘판벽조, 단층 맞배집	미상	- 장방형 평면의 북쪽에 편복도 - 지붕은 목조트러스 구조에 합석 이음
	5 평해중학교 강당 (울진/1954/2004)	- 1층 - 359.1㎡	목골비늘판벽조, 단층 맞배집	미상	- 내부전체가 통 칸으로 된 평면 - 대칭되게 창호를 설치 - 비늘판벽으로 외부 마감
	6 안계초등학교 강당 (의성/1956/2003)	- 1층 - 307.5㎡	붉은벽돌조, 단층 맞배집	미상	- 외관은 영석살기로 구성 - 창문은 대칭성과 수평성을 강조 - 입면구성은 비대칭이지만 부분적으로 대칭성
	7 죽장중·고등학교 교사 [죽장중학교](포항/1958/2003)	- 1층 - 506㎡	콘크리트조, 단층 맞배집	미상	- 시멘트 모르타르를 뿔칠 - 창문은 평인방에 목재유리창 - 천정은 졸대목에 베니어합판으로 마감
	8 순심중·고등학교 교사 (철곡/1962/2004)	- 3층 - 연면적: 4,167.94㎡ - 건축면적: 1,353.19㎡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3층 우진각지붕	미상	- 본관은 'C'자형 배치 - 격자형으로 천공된 곳에 유리를 끼운 벽면구성 - 처마부에서 계단실 벽체를 후퇴시킨 벽체 구성

* 출처: 경상북도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2004)

절하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비록 지정되지 못한 비지정문화재이고 수많은 근대교육시설들이 건물소유주에 의한 여타의 이유로 문화재 지정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된 측면이 있으나, 해방이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 지자체별로 고른 근대건축문화재 교육시설 분포현황을 보이고 있다. 넷째, 전통목구조 양식과 구별되는 외부로부터 근대문화의 수용을 상징하는 붉은 벽돌,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특히 목구조가 변형된 형태인 목조판변조 등의 새로운 구조양식이 지배적이다. 마지막으로, 일체식 구조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박공지붕 일색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유형의 경량지붕을 선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3.2 대구광역시 근대건축문화재 교육시설

첫째, 경상북도에 비해 대구광역시의 근대건축물 문화재 지정 활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총 8개의 근대교육시설들이 지정문화재로 공식 선정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전제로 적극적으로 재활용 중에 있어 건축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둘째, 이들 모두가 대구광역

시 중구에 위치하고 있어 중구는 명실 공히 ‘살아 있는’ 문화재특구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셋째, 이들 지정문화재 외에도 근대적 의미의 교육시설 7개가 비지정문화재로 선정되어 있는 바, 교남YMCA(중구, 1917)/대구제일중학교 강당(중구, 1932)/계성학교 강당(중구, 1955)/구 계명대학교 본관(남구, 1955)/동인초등학교 강당(중구, 1956)/경북대학교 본관(북구, 1956)/구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남구, 1968) 등이다. 넷째, 시기적으로는 근대에 속하는 교육시설이지만 우리나라 전통양식으로 건립된 오천서원(수성구, 1905)/광거당(달성군, 1910)/동호서당(동구, 1921)/백원서원(동구, 1928 이건) 및 진귀당(동구, 1947 중건)/수봉정사(달성군, 1946) 등의 근대교육시설들이 비지정문화재로 선정되어 있다.

김기철(2009)의 대구 근대건축문화재 분류방식에 따라 대구지역 근대교육시설(지정)을 분류해보면 아래 표4와 같다. 우선, 프랑스 신부 아담스가 설계한 계성학교 아담스관은 대구의 근대건축을 태동시킨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둘째,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신학 및 계몽교육기관과 일본

표 3. 대구지역 근대건축문화재 교육시설 현황 요약표

구 분 (분류/종목)	시설명 (소재/연도)	시설현황				
		규모 (연면적㎡)	구조	설계자	특징	
지정 (등록) 문화재	1. 교육시설- 유형 - 45호	계성학교아담스관 (대구/1908)	- 지상2층, 지하1층 - 392.85㎡	벽돌 조적조, 한·양 절충식, 한식기와지붕	아담스	- 최초의 양육교사 - 한·양육 절충식 - 한식기와 사용
	2. 교육시설- 유형 - 46호	계성학교백퍼슨관 (대구/1913)	- 지상2층 지하1층 - 414㎡	벽돌 조적조, 한·양 절충식, 한식기와지붕	아담스, 라이너	- 모임지붕에 한식기와 사용 - 층간 수평돌림띠 - 창의 밀인방은 3단 내쌓기
	3. 교육시설- 문자 - 23호	성유스티노신학교 (대구/1914)	- 지상2층 - 895.7㎡	벽돌 조적조, 로마네스크와 고딕양식 혼합	프와넬 신부	- 서구의 근대건축양식 - 벽돌 조적 기법이 우수함 - ㄷ자형태의 건물에서 양쪽 날개부분 및 정면일부는 철거
	4. 교육시설- 유형 - 48호	구 대구상업학교본관 (대구/1923)	- 지상2층, 지하1층 - 1,305.08㎡	벽돌 조적조, 일식기와지붕	미상	- 일자형의 벽돌쌓기 - 포치를 중심으로 좌우대칭 - 평복도식의 평면
	5. 교육시설- 등록 - 5호	대봉동 구 대구사범학교 ¹⁾ 본관(대구/1923) 및 강당(대구/1925)	- 본관 : 1,293.9㎡ - 강당 : 404.6㎡	벽돌 조적조, 아스팔트형글 모임지붕	미상	- 사각기둥을 세운 후 평지붕을 올림 - 반원형 지붕창 설치 - 외벽 모서리에는 버팀기둥 - 72년 화재로 내부소실, 복구
	6. 교육시설- 유형 - 47호	계성학교헨더스관 (대구/1931)	- 지상3층, 지하1층 - 2,639㎡	벽돌 조적조, 고딕 풍	헨더스	- 1964년 2층에서 3층으로 증축 - 증축 후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바닥을 슬라브로 개조 - 르네상스 고딕풍, 표현주의 양식
	7. 교육시설- 사적 - 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대구/1933)	- 3층 - 1,607.59㎡	벽돌 조적조	백정	- 산자모양의 중복도식 - 현관포치를 중심으로 좌우대칭형 - 옥상에는 옥탑을 설치
	8. 교육시설- 유형 - 44호	남산초등학교 강당 (대구/1936)	- 1층 - 402.78㎡	벽돌 조적조, 맨사드형 지붕	미상	- 장방향 평면의 4면 출입구 - 남쪽 중앙 정면 포치 중심 대칭구조 - 벽돌 들어쌓기에 의한 벽면 분할

* 출처: 대구광역시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2004)

¹⁾ 본관과 강당 등 2동이 각각 동일 번호의 등록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2개 건축물을 한데 묶어서 구 대구사범학교로 통칭하기로 함.

표 4. 시기별 대구지역 근대교육시설(지정) 분류

시기	근대교육시설	비고(설계자)
근대건축 태동기 (1886~1910)	▷ 계성학교 아담스관(1908)	선교사가 지은 대구 최초의 양육교사
근대건축 형성기 (1911~1926)	▷ 계성학교 맥퍼슨관(1913)	선교사
	▷ 성 유스티노신학교	선교사
	▷ 구 대구상업학교 본관(1923) ▷ 구 대구사범학교 본관(1923) 및 강당(1925)	일본인이 지은 실업인 및 교육자 양성기관
근대건축 발전기 (1927~1945)	▷ 계성학교 헨더슨관(1931)	선교사
	▷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1933)	일본인
	▷ 남산초등학교(1936)	일본인

* 출처: 김기철 (2009) 대구 도심 근대건축문화재 관리 및 활용방안

인을 중심으로 한 실용교육기관 등이 대구 근대건축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성학교 헨더슨관을 비롯해 더욱 세련되고 전문화된 교육시설들이 대구 근대건축의 발전을 선도하였다.

4. 근대건축문화재 교육시설의 건축적 특징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한 근대건축문화재(지정, 비지정 포함) 교육시설을 총괄하는 건축적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전통건축재료 및 기술로부터의 탈피

대구·경북지역 근대건축문화재 교육시설의 공통된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기존의 목구조 중심의 전통건축재료 및 축조기술로부터 철근콘크리트/벽돌 조적조/경량화된 지붕 등 서구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건축재료 및 기술로의 전이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런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둘째, 양질의 건축공사 유경험자인 중국인 조적기술자와 일본인 목수들이 대다수 대구·경북지역 근대교육시설 공사에 참여하면서 차별화된 근대건축술이 구현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4.2 기능과 형태의 이원화

기존의 우리나라 전통교육시설(이를테면, 서당이나 서원 등과 같이)이 내부 공간과 외부형태의 구성면에서 일체화된 연속성을 지닌 개념에서 출발하였다고 한다면, 근대교육시설들은 내부 공간 활용을 둘러싼 기능적 측면과 외부 형태 구성이 각기 의미론적으로 이원화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기능의 합목적성 달성도 중요하였지만 외

부 형태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조(이를테면, 고딕이나 로마네스크풍 등과 같이)들의 적용이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닌 채 사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4.3 건축의 공공성 확대

대구경북지역의 근대건축문화재 교육시설의 탄생은 불특정 다수의 지역민들에게 신학을 비롯한 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유한 권리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건축을 매개로 한 공공성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근대시기에 건립된 교육시설들의 건축적 규모, 형태, 용도 등 종합적인 면모를 살펴볼 때 지역사회 근대화의 척도이자 물리적 증거로서 근대교육시설 자체가 지니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의미만으로도 건축적 공공성 확대를 도모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아쉽지만 대구경북지역의 근대교육시설 지정문화재들 모두는 외국 선교사나 일본인들에 의해 설계되고 중국인과 일본인 기술자들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진 현상이 뚜렷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비지정문화재이긴 하지만, 계성학교 체육관(1955)/구 계명대학교 본관(1955)/경북대학교 본관(1956) 등을 설계한 건축가 조지용과 구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설계한 건축가 정경운 등의 작품들이 근대건축문화재 비지정 교육시설로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근대건축문화재에 대한 지역적 관심과 애정이 향후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전통건축문화재와 동등한 자격으로 지역의 근대건축문화재가 인식되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김기철, 대구 도심 근대건축문화재 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 2009-071, 2009
2.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 2004
3. 대구광역시,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 2004